

여수시 글로벌 교육도시로 발돋움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5년간 정부지원, 428억 예산 요청

국내 교육과정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화 수업을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여수에 들어선다.

여수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 8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국제화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여수시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으며, 특구법에 따라 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완화와 자율권을 얻어 다양한 맞춤형 국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 됐다.

여수시가 교과부에 제출한 특구 계획안은 5년간 428억2500만 원(연간 85억6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초·중등부문이 199억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프라 구축 177억 2500만 원, 산업인력양성 51억1500만 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 구성은 국비 40%, 교육특별회계 10%, 도비 10%, 시비 10%다.

신청분야는 융복합형으로 ▲국제화 자율시범학교 지정 육성 등 초·중등 교육 8개 사업 ▲글로벌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등 3개 사업 ▲국제 중

합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 인프라 구축 6개 사업이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추진방침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양성 분야를 포함한 점, 박람회 통해 국내 외적으로 도시 인지도와 도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 외국어 능력자 확보 등 국제화 기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점과 여수 국가산단에 대기업 등 많은 업체들이 있어 국제 교류 및 해외취업 기회가 많다는 점이 타 지자체 경쟁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레일바이크’ 타고 여수 풍경여행을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 해안가의 전라선 철도 폐선이 레일 바이크로 재탄생돼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철도시설공단 제공>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 해안가의 철도 폐선이 레일 바이크로 재탄생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만성리 해안가 전라선 폐선 구간인 마래터널~만성전널목 2km거리의 폐철도를 레일 바이크 운행 시설로 활용하는 공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완공하고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레일바이크는 총 40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 운행한다.

4인 기준으로 1회 최대 16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2인 1만6000원, 3인 1만8000원, 4인 2만원이다.

운행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수 해양관광개발로, 철도시설공단은 이 회사로부터 연 8000만원의 부지 임대료를 받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200일 남은 순천만 정원박람회

내일부터 입장권 사전 예매

통역·자원봉사자 교육 등 성공 개최 준비 순조

30국 참여확정 신청 늘 듯... 바람언덕 등 모습 갖춰

계막 200일을 앞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일부터 입장권 사전예매 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시민참여 붐 조성에 나선다. 행사장 운영을 위한 통역, 정원해설 및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도 한창이다.

현재까지 참여가 확정된 참가 국가는 30개국으로 해외 참가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 박람회장에는 세계정원 10개소와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들과 설치 예술가의 참여로 독특한 작품들이 조성된다.

주 박람회장의 경우 현재 도시숲,

미로정원, 바위정원, 한방 체험센터, 네덜란드 정원, 세계적인 지형디자이너인 찰스 쟁스가 설계한 '순천만 바람언덕' 등 정원들이 하나씩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70여개의 참여정원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32개의 정원은 해외 국가의 참여로, 국내에서는 SK, 환경부, 서울 등 대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들이 참여해 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수목원은 한국정원과 정원나무 도감원, 편백 휴양숲, 온실 등을 조성해 가벼운 산행을 즐기며 피톤치드 가득한 '자연속의 숲'을 체험하게 된다. 앞으로 잔디와 화훼식재를 마친 후 박람회장 개장까지 안정기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국제습지센터(지하 1층·지상 2층)는 도로변과 옥상을 언덕으로 연결하고 잔디를 깔아 정원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 지붕건축 개념이 도입된다.

태양광, 지열을 활용해 건물 전체 에너지의 42%가 그린에너지로 사용되는 국내 최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다.

세계 최초의 '다리 미술관'으로 꾸며지는 '꿈의 다리'는 현재 외부 및 내부 디자인 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상해 엑스포 한국관을 디자인한 강익중 작가가 외부를 디자인하고, 내부에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작품 16만점으로 꾸며진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순천만 일원 152만㎡에 조성된 박람회장에서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예정림·김은중 기자 jyj@

가을,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6일 순천 전통 아생차체험관 5주년 기념

천년고찰 태고총림 선암사 입구에 자리한 순천 전통 아생차체험관(이하 차 체험관)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6일 오후 3시 '차와 음악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 오카리나,

통기타 공연 등과 함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과 공예체험, 차 무료시음 등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순천시는 향후 차체험관의 '차문화예절 체험'과 선암사 '사찰 문화체험' 및 도립공원 조계산·상사

호·산지원에 체험장·야생화 단지가 있는 아의학습장 등의 생태환경체험, 괴목 행복마을의 한옥체험 등을 연계한 '선암사 권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순천시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산 자락 4995㎡ 부지에 한옥 8동으로 지어진 전통 아생차체험관은 지난 2007년 10월 개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 북

순창군 도내 최초 폐슬레이트 무료 처리

순창군이 전북 도내 최초로 폐슬레이트를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을 개량할 때 쓰던 자재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전문 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해야 한다. 농가에서 개별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비싸고 소량시 업체에서 기피하여 무단방치가 우려되는 등 주민들은 폐슬레이트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버려진 소량의 폐슬레이트를 자투리 땅에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면 무료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군은 처리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고, 1차로 지난 9월 3~7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11개 읍·면별로 중점 수거한 결과 578농가의 101t을 처리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교육감 소속 사무직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전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원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동일 직급 이하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행정 직렬 6급 17명, 7급 47명, 8급 213명, 9급 193명으로 총 470명이다.

원서는 5일까지 전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cso.jbe.go.kr/cso-one-ar99-001.do)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20일)과 면접시험(11월 6일)을 거쳐 11월 1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4대 종교, 순례길 함께 걷는다

11월1일부터 세계순례대회... 1만여명 참여

종교성지·지역문화 탐방 등 교류의 장 마련

천주교·원불교·기독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1만여명이 순례길을 걸으며 종교의 상생과 화합을 모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9박10일간 순례길을 걷는다. 10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11일에는 세계순례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티베트 종교문화부 베마친조르 장관(불교), 세계평화회의 공동 대표인 이오은 교무(원불교), 로마 교황청 순례특사인 조셉 칼라피 파랍빌 대주교(천주교) 등이 순례와 종교 화합의 상관관계를 조

명한다.

4개 종단은 지난 2009년 성지와 지역문화 화합을 연결, 전주~완주~김제~익산을 잇는 240km 길이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만들었다.

순례길 선로 이후 전국에서 매년 10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11일에는 세계문화유산 길로 지정했다.

또 매달 한 구간씩 나누어 순례하는 '도보 카페'가 마련되는 등 전국적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명의 순교자가 문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연결된다.

이들 성지에서는 신부와 목사, 스님, 교무 등 각 종단이 깨달음을 전하는 '종교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또 성지를 잇는 중간에는 가람이 병기 생가와 감암 송성용 기념관, 최명희 문학관, 한옥마을, 만경강 갈대밭, 제남리 독일, 고산전 숲속 오솔길도 만날 수 있다.

김수근 조직위원장은 "4대 종교가 순례길을 통해 통합하듯 이 길을 걸으며 분열과 반목의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단신

남원 '흥부골 포도' 과수 산업대전 최우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 따르면 남원시 '흥부골 포도'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의 '대한민국 과수 산업대전'에서 최우수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아영면 지리

산 흥부골포도 작목반의 김태근(60)씨가 최우수상을, 이길동(42)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남원포도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획득하는 등 고품질 포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내일부터 은파호수공원에서 군산 '진포예술제'

군산의 전통문화 축제인 '진포예술제'가 4일부터 보름간 은파호수공원과 시민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진포예술제는 고려 때 최무선 장군의 진포(군산의 옛 지명)대첩 승전을 기리는 행사로 이 지역의 전통이 깃

든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10월 5일)을 시작으로 발레공연 '햇살'(7일), 마방극 '심봉사전'(9일), 한·중 인기가수 초청 쇼(10일), 음악의 향연(11일) 등이 이어진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중점관리자원 민·관·군 합동 점검

김제시는 최근 전시 국가동원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 자원에 대한 민·관·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 장애인 보호 대책 등 5건의 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인적·물적 자원 분야 및 동원업체에 대한 중

합적인 동원계획 능력을 검토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현지 방문 등을 실시, 전시 동원 업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군의 상호 연계성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부안군, 성금 1120만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부안군은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1120만 원을 확보, 지역내 어려운 이웃 59세대에 전달했다.

군은 사회복지 시설 5개소를 방문해 쌀 100포(23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를 위문

했다.

이와 함께 쌀·과·소와 읍·면 직원들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29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위문금, 쌀 500포(1150만원 상당)를 각각 전달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나들이길 산들바람 코스모스 한들한들

고창군 고창읍 고인동 공원에 가을의 정령인 코스모스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고창군 제공>